

한·미 초등 음악 교과서 창작·즉흥연주 관련 교수학습 내용 비교

Comparison of Creative and Improvisational Class Activities in Korean and American Elementary Music Textbooks

홍승연*

Seungyoun Hong

초록 이 연구는 한·미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음악적 창의성 계발을 목적으로 한 창작 즉흥 연주 활동의 교수학습 내용을 비교하고, 2022 교육과정의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시사점 또는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창작 즉흥연주 활동의 중심적 교수학습 내용이 한국은 노랫말인 반면, 미국은 화음패턴과 음정패턴이라는 점이 뚜렷한 차이 중 하나였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창작 즉흥연주 활동의 양적인 구성면에서 5~10배 이상 많았고, 제재곡의 길이 측면에서는 미국은 대부분 8마디 이하 곡들인 반면 한국은 대부분 16마디 이상의 곡들로 구성되었다. 미국은 창작 즉흥연주 활동을 사전 활동과 목표 활동으로 구분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창작 즉흥연주 활동의 위치도 제재곡의 도입부, 종지부, 중간, 그리고 끝나는 음 등에서 교수학습이 이뤄지도록 구성하고 있다.

주제어: 음악적 창의성, 창작 즉흥연주 활동, 한·미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s of creative improvisation activities aimed at developing musical creativity in Korean and American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and to explore implications or applicability before the revision of the 2022 curriculum. One of the distinct differences was that the central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s of creative improvisation activities were lyrics in Korea, whereas chord patterns and pitch patterns in the United States. Also, compared to the Korean, the American textbooks had more than 5 to 10 times more in terms of the quantitative composition of the creative improvisation activities. And, in terms of the length of the song, most of the songs in the American textbooks were 8 bars or less, whereas in the Korean, the songs were mostly 16 bars or more. In the American textbooks, creative improvisation activities are located at the beginning, cadence, middle, and ending notes of the song.

Key words: musical creativity, creative improvisation, Korean/American music textbooks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yhong@gnue.ac.kr

Professor,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ilmunro 55, Gwangju, Korea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통 교육과정으로서 음악 교과는 그 성격을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며,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워 삶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성격에 기초한 초등학교 음악 교과의 세 가지 목표 중 하나는 ‘음악의 구성 및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기초적인 연주 기능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2015a. pp. 3~4).

2015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의 표현 영역에서는 음악 교과 성격과 목표에 연결된 핵심 개념과 일반화 지식으로 설명하고 노래와 연주뿐만 아니라 ‘음악 만들기’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표현 활동에 대한 여섯 가지 성취기준 중 [4음01-03]과 [4음01-04], 그리고 [6음1-04]는 음악 교과의 성격을 특징짓는 음악적 창의성 계발을 위한 부분과 맞닿아 있다.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를 만드는 것, 또는 제재곡의 일부 리듬꼴이나 장단꼴과 가락을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 등으로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른다고 간주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성취기준 해설을 보면 공통 교육과정으로서 음악 교과의 창의적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염두에 두었는지 명확해진다. 먼저 악곡의 노랫말과 음악적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음악적 산출물을 자유롭게 만들고 표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어진 ‘노랫말을 느낌대로 바꾸어 부르거나’, ‘말붙임새로 만들어 표현’하도록 하되, 리듬꼴이나 장단꼴, 또는 가락(5,6학년)을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게 바꾸어 노래하거나 악기로 연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Ministry of Education, 2015a. pp. 6~11).

악곡의 ‘노랫말’을 바꾸어 부르는 것과 일정 마디의 ‘리듬꼴’이나 ‘가락’을 바꾸어 적거나 적은 후 노래나 악기로 표현하는 것으로 창의적 표현을 위한 학습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음악적 창의성(Creativity) 측면에서 보면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Jung, 2020; Shin, 2019). 음악적 창의성은 음악 창작이나 즉흥연주(Improvisation)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를 위한 접근 역시 기초부터 매우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물론 공통 교육과정은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교과서 역시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 교수학습 내용과 활동의 선별적 수록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한정된 페이지 안에서 교육과정을 엄밀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한국 교과서 집필 환경

과 비교적 제약이 없는 미국의 교과서 집필 환경의 차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노랫말이나 말붙임새 바꾸기로 또는 단순히 리듬꼴을 몇 번 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음악적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수업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고든(Gordon, 1989, p. 75)은 음악적 창의성은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음악적 창의성의 잠재력을 실현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생들이 음악적으로 창의성을 갖게 하려면 교사는 학생의 음악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하고, 최대한 많은 수의 조성패턴과 리듬패턴을 포함한 오디에이션 어휘를 습득하지 않고는 학생들은 음악적으로 창의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음악적 창의성 계발과 조성·리듬패턴을 포함한 오디에이션 어휘의 불가분 관계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떤 관점이 맞거나 틀렸는지를 알아보거나 어떤 관점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집필된 양국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창작 및 즉흥연주 관련 교수학습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와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찾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초등학교 5~6학년 음악 검정교과서와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에 기초하여 제작된 미국 초등학생용 음악 교과서, *Jump Right In, the Music Curriculum, Book 1* (이하 *Jump Right In*)에 나타난 창작 및 즉흥연주 활동 교수학습 내용(Taggart et al., 2000, p vi; <https://giml.org/mlt/applications>)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각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2022 음악과 공통 교육과정 계발과 교과서 제작에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현행 초등학교 5~6학년군 8종 음악 교과서와 미국 GIA 출판사 발행 *Jump Right In*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1학년 대상)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Jump Right In*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지도서에 창작/즉흥연주를 40회에 걸쳐 체계적으로 초보적 단계에서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 내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초등학교 음악 5~6 교과서의 경우 출판사별로 창작 및 즉흥연주와 관련된 지도 내용을 구분하여 종류와 활동별로 분류하고, 미국 *Jump Right In* 지도서의 경우 학습위계활동(Learning Sequence Activities, 이하 L.S.A.)의 한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창작/즉흥연주(Creativity/Improvisation) 지도 내용을 구분하여 그 종류와 활동별로 분류하였다. 이어 한국 음악 교과서의 출판사별로 창작 및 즉흥연주를 위한 교수학습 내용들을 빈도

분석하였고, 어느 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Jump Right In*의 경우 창작 및 즉흥연주 활동 관련 교수학습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나타난 창작 즉흥연주 지도에 사용된 음악적인 재료들, 창작 또는 즉흥적 연주가 사용된 위치들, 그리고 창작 또는 즉흥적 연주를 위해 지도한 사전 활동과 목표 활동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첫째, 한국 초등 음악교과서의 경우 5~6학년 군으로만 창작, 즉흥연주 관련 교수학습 내용을 살펴보았다. 3~4학년 군에서도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5~6학년 군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이때 본격적으로 창작 즉흥연주 관련 학습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미국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경우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에 기초하여 제작된 교과서라는 점에서 미국 전역을 대표하는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가 아닌 이유로 한·미 간 초등학교 창작 및 즉흥연주 관련 교수학습 내용의 비교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셋째, 창작 및 즉흥연주 관련 교수학습 대상이 한국의 음악 교과서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Jump Right In*은 미국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순 비교에 따른 결과의 일반화는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음악교육과 창의성 관련 논의

창의성 관련 용어의 등장은 1992년 제6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창의적’인 사람(Creative person)이란 말과 함께 공식화되고,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을 거치면서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으로 설정하면서 더욱 강조가 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b, pp. 19~20).

서구의 경우는 1970년대에 이미 이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교육과정에 ‘창의성’이 강조되었다. 물론 초창기 창의성이란 말 자체가 애매모호하여, 학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하였다. 화이트(White, 1968, pp. 123-137)는 창의성의 모호

성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비교육적이거나 심지어 반교육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이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활동들로 잘못 이해한 부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엘리엇(Elliott, 1971, pp. 139~140)은 창의성의 두 중심 개념을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으로 구분하면서, 성경의 창조와 관련지는 ‘전통적’인 개념이 일상적 언어 사용에 강하게 이식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전통적’ 개념에서의 창의성은 ‘생산’의 가치에 방점이 있지만, 새로운 개념은 심리학과 연결된 ‘풍부한 상상력(Imaginative thinking)’이라고 보았다.

음악교육 영역에서도 창의성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설명 없이 작곡과 즉흥연주가 창의성이 요구되는 활동들로 추측 또는 일반화 되어 사용됐다. 영국의 경우 교육부(DFEE)와 교육과정청(QCA)이 함께 하여 발행한 영국 중등학교 교사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 안내서에서는 음악을 지도함에 있어 ‘자기연습 및 창의성의 증대’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적시하고 있고, ‘음악적 아이디어의 계발과 창의성’이라는 영역(Key stage 3)에서는 ‘Creating’을 ‘composing’과 ‘improvisation’의 연결점으로 보고 있다(Caballol, 2003. p. 14).

2015 음악과 교육과정 역시 음악 교과의 성격을 ‘음악성과 창의성 계발’로 일부 규정하면서도 명확한 설명 없이, 해당 목표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삼고, 내용 체계의 표현 영역에서 ‘음악 만들기’를 기초로 ‘노랫말 바꾸기, 말붙임새 만들기, 리듬꼴이나 장단꼴 바꾸어 표현하기’ 등으로 세부화시켜 나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적인 면에서 접근한 고든(Gordon, 1989)은 앞서 언급했듯이 음악적 창의성을 가르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음악적 창의성과 관련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음악적 창의성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준비를 돕는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학생들의 음악적성 정도를 알아야 하며, 최대한 많은 수의 조성패턴과 리듬패턴을 포함한 오디에이션 어휘를 습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음악적 창의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것에 기인한다.

2. 선행연구

이연경(Lee, 2001, pp. 95~98)은 대학 기초 피아노 과정에 창작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학습유형 연구에서 ‘즉흥연주는 순간적인 음의 상상에 의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악기를 통해 실제 소리로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행위’로 즉흥연주의 특성을 정의하고, 음악적 개념들을 기반으로 한 창작즉흥연주 지도를 위한 학습유형을 소개한다.

권수미(Kwon, 2018, pp. 147~149) 역시 초급 피아노 학습자를 위한 창작즉흥연주

교육 자료 개발 연구에서 창의적 음악활동을 작곡, 연주, 즉흥연주,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분석적 활동 등으로 구분하면서, 음악교육을 통한 창의성 개발은 초급 단계부터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활발히 적용되어야 하는 기초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작곡이 음악을 창조하는 과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즉흥연주는 창조와 연주 두 과정이 동시에 발현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 음악 교과서의 창작 영역을 분석한 신혜경(Shin, 2019, pp. 691~710)의 연구에서는 창작 영역의 활동 유형이 리듬 또는 가락만들기, 즉흥연주와 같은 음악 창작 활동 보다는 노랫말이나 음악극 만들기과 같은 활동에 비중이 높고, 특히 전체 활동의 44%에 달하는 노랫말 또는 말붙임새 관련 활동이 창작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형식이나 빠르기, 셈여림, 음색과 같은 음악 요소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창작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제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적 창작활동 자료로서 ‘매직 핑거 피아노’를 학교 현장에 활용 가능한지 탐색한 정윤정(Jung, 2020, pp. 65~83)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음악 창작 활동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교육과정상에 창작 활동과 관련한 내용 체계가 협소하거나 넓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공존하고, 3~4음을 사용한 간단한 가락 짓기가 필요하며, 학습자의 흥미유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을 위한 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초등학생의 음악 창작활동 과정과 지도방안을 조사한 박지현(Park, 2011, p. 5~1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작곡은 변형 작곡, 제한 작곡, 자유 작곡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때 교사는 학생들의 창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매시간 다양한 유형의 창작 수업이 늘 행해지도록 노력하되 리듬 및 가락을 중심으로 한 기초적 음악 개념의 활용이 되도록 제시한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음악 창작 교육에 대한 12년간의 석사학위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한 박지현(Park, 2012)의 연구에서는 6가지 틀을 가지고 내용 분석을 하였고, 음악 창작 수업에 스캐폴딩(Scaffolding) 이론을 적용한 변현주(Byeon, 2017)의 연구와 ARCS 전략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적용한 창작지도 방안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작·즉흥연주 교수학습 내용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비교로서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III. 창작·즉흥연주 교수학습 내용 비교

1. 한국 초등 음악 5~6 교과서 내 창작·즉흥연주

음악적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재곡의 노랫말 바꾸기, 노랫말에 맞는 말붙임새 만들기, 제재곡 일부 리듬꼴 바꾸어 표현하기, 제재곡 일부 가락 바꾸어 표현하기 등이 그것이다.

2015 음악과 교육과정하에 출판된 8종 초등 음악 5~6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음악적 창의성 계발을 위한 창작 또는 즉흥연주 교수학습 내용과 활동은 대동소이하였다. 출판사별로 많게는 17회 정도에서부터 적게는 8회 정도의 창작 즉흥연주 활동을 제시하였다.

출판사별로 제시한 음악적 창의성 계발 목적의 활동들을 구분하여 보면 15가지로 나눌 수 있다. ‘리듬짓기’, ‘가락짓기’, ‘가사짓기’, ‘개사하기’, ‘말붙임새 만들기’, ‘말붙임새 바꾸기’, ‘리듬+가락짓기’, ‘가사+가락짓기’, ‘개사+가락짓기’, ‘개사+가락 바꾸기’, ‘개사+말붙임새 바꾸기’, ‘화음반주’, ‘창작하기’, ‘즉흥연주’ 등이다.

모든 출판사가 음악적 창의성 계발 목적의 활동으로 제시한 부분은 ‘개사하기’(25.3%)로 많게는 5회에서 적게는 2회씩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리듬짓기(20.7%)와 가락짓기(12.6%)였고, 가사짓기(10.3%)와 말붙임새 바꾸기(8.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음악적 창의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창작하기와 즉흥연주하기 부분이 너무 적었고, 그나마 두 출판사만이 해당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B 출판사의 경우만 동요 창작의 기본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실제로 곡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다음 <Table 1>은 출판사별 음악적 창의성 계발을 위해 제시한 활동 내용들을 분류하여 나타낸 분석표이다.

출판사별로 살펴보면 분류한 동일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주안점이나 활동 방법과 내용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 예로 리듬짓기의 경우 모 출판사는 말 리듬과 리듬악기 연주 활동을 제시하고 있고, 다른 출판사는 간주 부분 리듬을 바꾸어 연주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악적 창의성 계발을 위해 이용한 악곡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조성은 장조(55.2%)가 차지하고 있고, 박자는 민요 리듬의 12/8박자(40.2%)와 4/4박자(39.1%)가 주를 이루었다. 음악적 창의성 계발을 위해 사용된 악곡들의 길이를 살펴보면 미국 Jump Right In과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대부분의 악곡들은 5~8마디(47.5%), 가장

<Table 1> Contents of teaching and learning to develop musical creativity by publisher

Contents \ Publisher	A	B	C	D	E	F	G	H	Total (%)
Rhythm creation	1	5	4		3	2	1	2	18 (20.7)
Melody creation		4	1	2	1	3			11 (12.6)
Lyric creation	3	2		1			1	2	9 (10.3)
Lyric changing	2	2	3	2	5	4	2	2	22 (25.3)
‘Malbutimsae’ creation		1					1	2	4 (4.6)
‘Malbutimsae’ changing	1			1	2	1	1	1	7 (8.0)
Rhythm+melody creation	1		1						2 (2.3)
Lyric+melody creation				1					1 (1.2)
Lyric ch.+ melody creation					1	1	1		3 (3.4)
Lyric ch. + ‘Jangdan pattern’ ch.					1		1		2 (2.3)
Lyric+melody ch.	1								1 (1.2)
Lyric+‘Malbutimsae’ ch.					1		1		2 (2.3)
chord accompaniment				1					1 (1.2)
Creation		2							2 (2.3)
Improvisation	1	1							2 (2.3)
Total (%)	10 (11.5)	17 (19.5)	9 (10.3)	8 (9.2)	14 (16.1)	11 (12.6)	9 (10.3)	9 (10.3)	87 (100)

긴 곡은 17마디(2.5%)임). 음악 5~6에 사용된 악곡들은 9~12마디(32.0%)와 17~24마디(20.8%) 길이의 곡들이 많았고, 25마디 이상의 곡들도 1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래 <Table 2>는 제재곡들의 조성, 박자, 마디 수를 조사한 내용이다.

<Table 2> Basic elements of the songs used for creativity and improvisation

Tonality		Meter		Number of the measures	
Major	48 (55.2)	2/4	3 (3.4)	Under 4 bars	0
Minor	2 (2.3)	3/4	6 (6.8)	5~8	13 (15.0)
3-note scale	17 (19.5)	4/4	34 (39.1)	9~12	28 (32.0)
4-note scale	4 (4.6)	6/8	5 (5.8)	13~16	13 (15.0)
5-note scale	14 (16.1)	12/8	35 (40.2)	17~24	18 (20.8)
Rhythm chant	2 (2.3)	Compound Meter	4 (4.7)	Above 25 bars	15 (17.2)
total (%)	87 (100)		87 (100)		87 (100)

다음은 출판사별 활동의 종류와 그 내용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출판사 이름은 무기명 처리하였다. A 출판사의 경우 7가지 종류로 10개의 창작 즉흥 관련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두드러진 활동은 가사짓기와 개사하기로 각각 3개와 2개이며, 특이한 점은 4/4박자 제재곡의 2마디를 리듬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즉흥연주 활동이 있다.

<Table 3>으로 알 수 있듯 이외에도 주어진 말붙임새를 바꾸어 적어 보는 활동, 메기는소리에서 노랫말과 가락을 바꾸어 부르기, 4/4박자 일부 마디의 리듬 채우기,

<Table 3>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musical creativity in A publisher

Contents	Activity
Rhythm creation	- Fill in 2-measure rhythm, 4/4 meter
Melody creation	- Create a melody using ‘Yugjabaegitori’ tones
Lyric creation	- Create and sing rap lyrics that fit a certain part - Write ABA form lyrics and sing to the given melody
Lyric changing	- Change ‘leading song’ lyrics and sing - Change environmental protection lyrics and sing
‘Malbutimsae’ changing	- Change a given ‘Malbutimsae’ and write
Rhythm+melody cr.	- Create rhythm and melody on a given lyrics and sing
Lyric ch.+melody ch.	- Change ‘leading song’ lyrics and melody and sing
Improvisation	- Express 2-measure rhythm freely in 4/4 meter

제재곡 일부분에 어울리는 노랫말을 랩으로 만들어 노래하기, aba 형식 노랫말을 지어 주어진 가락에 붙여 노래하기, 육자배기토리 구성음을 이용해 가락짓기 및 불러보기 등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B 출판사(Table 4)는 7가지 종류로 타 출판사에 비해 가장 많은 17개의 창작 즉흥 관련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은 리듬짓기(5회)와 가락짓기(4회)이며, 특이한 점은 ‘내 노래 만들기’ 코너를 만들어 실제로 학생이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주제, 노랫말, 리듬, 가락 등 순서를 제시하고, 순차적으로 학생들이 노래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따라 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4/4박자 제재곡의 2마디 리듬 전주를 짓고 노래하기, 화음에 어울리는 2마디 가락 짓고 연주하기, 6/8박자에서 2/4박자로 변박자를 네 마디씩 리듬 짓고 연주하기, ‘미,라,도’ 3음을 사용하여 이어지는 가락 짓기, 모듬별로 2마디 리듬 반주, 랩 노랫말 만들어 연주하기 등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4>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musical creativity in B publisher

Contents	Activity
Rhythm creation	- Fill in 2-measure rhythm intro in 4/4 meter and sing - Write 3 ambient sound 4-measure in 4/4 and perform - Fill in 4-measure in 6/8 to 2/4 and perform - Create rhythmic accompaniment to match the song and play with multiple instruments - Create 2-measure rhythmic accompaniment in 4/4 and perform by each group
Melody creation	- Play 2-measure melodies that match the chord - Create the next melody using ‘Mi, La, Do’ - Complete 6 bars out of 8 in 6/8 based on given lyrics and play - Create a minor melody using a given rhythm and play
Lyric creation	- Create lyrics and sing - Create rap lyrics in a certain place and sing in each group
Lyric changing	- Create a ‘leading song’ part lyrics and sing - Change a part of lyrics and sing
‘Malbutimsae’ creation	- Write ‘Malbutimsae’ fitting a pattern in Jeong-ganbo
Creation	- Create music on the story of Bremen march and play in each group - Create your own song, ordered by theme, lyrics, rhythm, melody etc.
Improvisation	- Express one scene of the lyrics with any material and instruments

C 출판사(Table 5)의 경우 4가지 종류로 9개의 창작 즉흥 관련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두드러진 활동은 리듬짓기와 개사하기로 각각 4개와 3개이며, 특이한 점은 창작

리듬과 가락 오스티나토를 만들어 표현하도록 하는 활동이 있다. 이외에도 리듬 반주를 개인별로 만들어 모듬별로 발표하기, 제재곡 이어 두 마디 가락짓기, 6/8박자 제재곡 4마디 리듬을 조합하기 등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5>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musical creativity in C publisher

Contents	Activity
Rhythm creation	- Create 'word rhythm' and play with rhythm instrument - Accompany with rhythm and sing - Create a rhythm accompaniment and play in each group - Combine 4-measure rhythm in 6/8
Melody creation	- Create 2-measure melody right after the song
Lyric changing	- Change some part of lyrics and sing - Change 'leading song' and folk scale and sing
Rhythm+melody cr.	- Create some rhythm and melodic ostinato and sing

D 출판사(Table 6)의 경우 6가지 종류로 8개의 창작 즉흥 관련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비중을 둔 활동은 가락짓기와 개사하기로 각각 2개씩이며, 특이한 점은 창의적 화음 반주하기 활동으로 다장조 곡을 찾아 창의적으로 화음 반주를 넣고 노래하기 활동을 삽입했다.

<Table 6>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musical creativity in D publisher

Contents	Activity
Melody creation	- Create a melody with the given rhythm and lyrics - Create the 4 bars of melody and lyrics in 4/4 time
Lyric creation	- Create and sing rap lyrics that fit a certain part
Lyric changing	- Change the lyrics to match the Jangdan and sing - Change the lyrics of a certain part of the song and sing
'Malbutimsae' creation	- Change the 'leading song' and a part of melody and sing
Chord accompaniment	- Put chord accompaniments creatively in C major

E 출판사(Table 7)의 경우 7가지 종류로 14개의 창작 즉흥 관련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두드러진 활동은 개사하기와 리듬짓기로 각각 5개와 3개이며, 특이한 점은 제재곡의 간주 부분의 리듬을 바꾸어 연주하기, 한 마디는 노랫말 짓기와 두 마디 가락짓기, 메기는소리 노랫말과 장단꼴 바꾸기 등 즉흥연주 활동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Table 7>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musical creativity in E publisher

Contents	Activity
Rhythm creation	- Change intermittent part rhythm and play - Change Jangdan pattern and play - Change the 4 bars' rhythm in 6/8 and sing
Melody creation	- Change the melody of the 'leading song' and sing
Changing lyrics	- Change the lyrics of the 'leading song' and sing - Change the lyrics and sing - Change the lyrics of the 'leading song' - Change some lyrics of the song and sing
'Malbutimsae' Change	- Change 'Malbutimsae'(rhythm) and sing - Create Mal Jangdan and sing
Lyric ch.+melody creation	- Create one bar lyric and two bars melody and sing
Lyric ch.+ 'Jangdan pattern'	- Change lyrics of 'leading song' and Jangdan pattern
Lyric ch.+ 'Malbutimsae' ch.	- Change the lyrics of 'Malbutimsae'(rhythm) and sing

F 출판사(Table 8)의 경우 4가지 종류로 11개의 창작 즉흥 관련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주된 활동은 가락짓기와 개사하기로 각각 3개와 4개이며, 특이한 점은 주어진 장단꼴 율명을 사용해 가락을 짓고 소금 또는 단소로 연주하기, aba 형식의 곡 중 b의 4마디를 리듬짓기로 만들어 연주하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8>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musical creativity in F publisher

Contents	Activity
Rhythm creation	- Create and perform a 4-bar rhythm of B in ABA form - Make a 4/4 time 2-bar rhythm pattern and a rhyme with a proverb
Melody creation	- Put the given rhythm in 2 of the 4-bars of a 6/8 song and a melody - Create a melody using the given Jangdan pattern, 'Yulmyung' and Play it with Sokum or Danso - Create a 2-bar melody out of 4 bars in 3/4 song
Lyric changing	- Change the lyrics of the song and sing - Change the lyric of the 'leading song' part and sing - Change the lyric for 8 'Malbutimsae' and sing
'Malbutimsae' changing	- Change 'Malbutimsae' of the 'leading song' and sing
Lyric+melody creation	- Create a 2-bar melody and lyric of the song and sing

G 출판사(Table 9)의 경우 8가지 종류로 9개의 창작 즉흥 관련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주된 활동은 2회의 개사하기이고, 특이한 점은 가사와 말바꿈새를 바꾸어 노래

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9>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musical creativity in G publisher

Contents	Activity
Rhythm creation	- Fill in a 2-bar rhythm in the middle of the song and sing
Lyric creation	- Create any lyrics that would fit on the melody and sing
Lyric changing	- Change any lyrics that would fit on the 'leading song' part and sing
'Malbutimsae' creation	- Create any words for the 'Malbutimsae' of the song and sing
'Malbutimsae' changing	- Change the given 'Malbutimsae' and sing
Lyric ch.+melody creation	- Change the given lyric and create a melody for it
Lyric ch.+‘Jangdan pattern’ ch	- Change the lyric of 'leading song' and Jangdan pattern to sing
Lyric ch.+‘Malbutimsae’ ch.	- Change the given 'Malbutimsae' and sing

H 출판사(Table 10)의 경우 5가지 종류로 9개의 창작 즉흥 관련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주된 활동은 가락짓기, 가사짓기, 말붙임새짓기, 개사하기로 각각 2회씩 제시하고 있다.

<Table 10>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musical creativity in H publisher

Contents	Activity
Rhythm creation	- Fill in a 2 bar rhythm in 4/4 time song and sing
Lyric creation	- Create any lyric using 'Yukjabaegitori' and sing
Lyric changing	- Change a part of lyric fitting on the rap of the song and sing - Change the given lyric of the ABA form song and sing
'Malbutimsae' creation	- Create the 'Malbutimsae' and sing
'Malbutimsae' changing	- Change the 'Malbutimsae' and sing

2. 미국 Jump Right In 창작·즉흥연주 교수학습 내용

미국 초등학교 음악교육을 위해 GIA 출판사에 의해 제작된 Jump Right In 교과서는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을 기초로 집필된 특징을 갖는다. 각 단위 제재곡마다 Whole(1단계)-Parts(2단계)-Whole(3단계) 단계의 수업 진행 과정을 거치면서 악곡을 익히고, 중국에는 학생들의 오디에이션 능력을 키우는데 최종적 목표를 두고 있다.

창작과 즉흥연주 활동은 각 단위 수업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악곡 및 계획된 순서에 따라 40회에 걸쳐 지도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창작과 즉흥연주 활동

은 Creativity/Improvisation 이름으로 Whole-Parts-Whole 단계 중 Parts 부분에 위치하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제재곡을 익힌 상태에서 즉흥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Parts 단계는 학습위계활동(Learning Sequence Activities: L.S.As)으로 불리며 대부분은 Tonal과 Rhythm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음악 요소(음정 패턴, 리듬 패턴) 중심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두고 있다. 이 중에서도 Tonal(조성, 음정) 부분에 Creativity/Improvisation 이름으로 창작 즉흥연주 활동을 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Jump Right In(Book 1)에서는 I도와 V도 화음 패턴을 중심으로 이용해 창작 즉흥연주 활동을 다루고 있고, 창작 즉흥연주 활동에는 제재곡들의 구성과 박자에 제약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재곡 가락이 단순한 편이거나 마디 수가 짧은 편에 속한다. 다음 <Table 11>은 창작 즉흥연주 활동을 위해 사용된 제재곡들의 기본적인 조성, 박자, 마디 수를 조사한 내용이다.

<Table 11> Basic elements of the songs used for creativity and improvisation

Tonality (%)		Meter (%)		Number of the measures (%)	
Major	22 (55)	2/4	14 (35)	Under 4 bars	6 (15)
Harmonic minor	4 (10)	3/4	4 (10)	5~8	19 (47.5)
Aolian	4 (10)	4/4	11 (27.5)	9~12	3 (7.5)
Dorian	2 (5)	6/8	8 (20)	13~16	11 (27.5)
Pentatonic	6 (15)	Mixed meter	3 (7.5)	Above 17 bars	1 (2.5)
Mixed tonality	2 (5)				
Total	40 / each column (100%)				

창작·즉흥연주 음악활동을 위해 사용한 악곡의 마디 수를 집중해서 보면 17마디 이상의 길이의 악곡은 1곡뿐이고, 8마디 이하의 제재곡이 대부분(47.5%)이며 제재곡 중에는 심지어 16개 음의 2마디로 만들어진 악곡, ‘Name My Instrument’도 있다. 여기서 학생들의 악기의 소리를 내야 하는 위치(노래를 마치는 지점)에 짧은 음정 패턴

으로 코다를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고 있다.

제재곡 조성의 I도와 V도 화음 패턴을 중심으로 이용해 창작 즉흥연주 활동을 다루고 있고, 목표 활동에 따라 교사의 의도적인 사전 활동이 앞선다. 대부분 창작 즉흥연주 수업의 목표 활동은 해당 제재곡의 도입부, 중간, 코다, 또는 곡의 일부분에서 즉흥적으로 음정, 화음, 리듬 등의 패턴을 대체하거나 변형 또는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한다. 다음 <Table 12>는 음악적으로 사용한 재료와 목표 활동에 따라 사전 활동은 무엇을 하였는지 보여주는 표이다.

<Table 12> Musical material, pre-activity and target activity for creativity and improvisation

Musical material	Pre-activity	Target activity
Tonic patterns	- Changing tonic patterns given by teacher - Creating any tonic pattern in 5 beats - Creating any tonic pattern with 4 notes - Changing 2-note patterns given by teacher - Audiating 2~3 note patterns - Creating tonic patterns - Checking where tonal patterns occur - Creating 3 tonal patterns of the song - Audiating the last tonic chord of the song	- Improvising after the song with them - Improvising on the last note of the song with them - Improvising 2-bar intro for the song with them - Improvising the intro and coda for the song with them - Improvising in the middles of the song with them - Improvising using them in the song - Improvising the song with the varied tonal patterns - Improvising the song in the 3 places using the patterns - Improvising at the last part of the song using the patterns
Tonic +rhythm	- Creating tonic patterns freely with creative rhythms	- Singing them for the song as accompaniment
Tonic +dominant	- Changing tonal patterns of the song - Creating tonic+dominant patterns	- Performing the whole song using the patterns - Improvising the intro of the song with tonic+dominant patterns
Tonic +dominant +tonic	- Finding tonic, dominant patterns in the song	- Improvising the intro of the song with I-I-V-I patterns
Dominant	- Creating dominant pattern of harmonic minor and sing	- Improvising a part of the song with the dominant pattern
Melody	- Creating different endings - Changing the rhythm of the song - Audiating any alternative melody of a part of the song - Creating melody ostinato - Creating tonal patterns	- Improvising at the last note of the song with different endings - Creating a melody for the rhythm of the song - Creating melodies at the 2 places of the song - Improvising the song using the melody ostinato - Improvising a part of the song using a melody

음악적 소재와 더불어 창작 즉흥연주 활동을 제재곡의 어느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창작 즉흥연주 활동의 목표를 보면 해당 위치가 악곡의 어느 부분에서 다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창작 즉흥연주 활동이 다뤄지는 위치는 제재곡 도입부, 중간, 코다, 또는 곡의 일부분 등으로 나타난다. 다음 <Table 13>는 창작 즉흥연주 활동이 다루어진 위치에 따른 활동들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주는 표이다.

<Table 13> Locations and contents of activity for creativity and improvisation

Locations	Target activity
End of the song	- Improvising right after finishing the song - Improvising at the last pitch of the song - Singing different pitches instead of 'Do' at the last note - Improvising tonic pattern at the end of the song - Improvising coda with 3 pitches of pentatonic scale - Improvising coda freely - Creating the finish of the song with any pitches
Intro of the song	- Improvising intro part only with 'Do, So' - Creating intro with 2 pitches of pentatonic - Improvising 2-bar long intro part of the song - Improvising intro with I+V harmonic pattern - Improvising intro with I-I-V-I harmonic pattern
Accompaniment for the song	- using accompaniment of the song - Improvising melodic ostinato in the song
Accompaniment in the middle of the song	- Creating accompaniment in the given measures
some/whole part of the song	- Improvising some parts with the dominant patterns - Improvising some parts with the dominant and tonic pattern - Changing and performing the patterns in the song - Improvising chord patterns in the song - Improvising some melodies in the song - Improvising tonal patterns in the song - Improvising melodies in 2 places of the song - Improvising tonal pattern in 3 places of the song - Changing the whole song and performing the song - Creating melody for rhythm chant part of the song - Improvising and comparing between major I-V and harmonic minor I-V patterns - Improvising tonic pattern in the given rhythm lyric
Intro + end of the song	- Creating intro and coda with the tonic pattern - Improvising intro with I-V and coda with V-I patterns - Improvising intro and coda freely

창작 즉흥연주의 위치와 목표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게 순차적으로 설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창작 즉흥연주를 할 수 있는 위치를 제재곡의 ‘중지부’에서 시작하도록 하였고, 예를 들어 목표 활동도 제재곡의 마지막 음, ‘도’에서 다른 으뜸화음 음정으로 부르기와 같은 단순한 변화를 주는 것으로 교수학습을 구성하고 있다. 점차 두 개 또는 세 개 음정들이나 으뜸화음에서 딸림 화음, 자유로운 음정으로 마침 부분 만들기나 즉흥연주 하기 등으로 발전하도록 교수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3. 논의점

한국의 8종 음악5~6 교과서와 미국 *Jump Right In*의 음악적 창의성 계발을 위한 활동 또는 교수학습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논의할 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가사짓기나 개사하기가 음악적 창의성 계발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 및 새 교육과정에도 이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Jump Right In*과는 달리(거의 없음), 한국의 음악적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은 가사짓기, 개사하기, 말붙임새짓기, 말붙임새바꾸기 등이 주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나 교수학습 내용이 초등학생들의 음악적 창의성 계발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결론을 찾기 쉽지 않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둘째, 한정된 조성이나 스타일의 제재곡으로 학생들의 음악적 창의성 계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조성과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이용한 미국 *Jump Right In*과는 달리, 한국 출판사는 자유롭게 악곡을 선정할 수 있고 다양한 스타일의 곡들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악곡들이 장조 조성의 곡(55.2%)과 3,5음 음계의 민요(35.6%)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음악적 창의성 계발 측면에서 볼 때 너무 국한된 측면이 있어 아쉬움을 갖게 한다.

셋째, 음악적 창의성 계발을 위한 곡 선정에 제재곡의 길이(마디 수) 역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적 창의성 계발에 악곡의 길이가 딱히 몇 마디의 곡이 적합하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미국 *Jump Right In*의 경우 음악적 창의성 계발을 위해 선정한 악곡들의 길이가 모두 16마디 이하였고, 대부분은 8마디 이하(62.5%)로 이루어진 곡들이었으며, 심지어 4마디 이하의 곡도 15%나 되었다. 이는 짧은 제재곡을 빠른 시간에 익힌 후 해당 악곡을 기초로 다양한 즉흥적인 연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의 5,6학년 제재곡들은 대부분이 16마디 이상(53.0%)이고, 심지어 30마디가 넘는 곡들도 10%

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논의점으로 남는다.

넷째, 음악적 창의성 계발을 위한 주요 교수학습 재료는 ‘노랫말’ 보다는 ‘화음패턴(으뜸, 딸림화음)이나 가락패턴’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 출판사들의 경우 노랫말을 이용한 창의성 계발 활동이 66.7%에 달했지만, *Jump Right In*의 경우 노랫말을 이용한 창의성 계발 활동은 없었다는 점이 주는 시사점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미국의 *Jump Right In*처럼 국내 출판사도 음악적 창의성 계발을 위한 사전 활동과 목표 활동의 구분이 필요하고 사전 활동과 목표 활동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수업 설계의 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음악적 창의성 계발 활동을 하는 제재곡에서의 위치 및 즉흥연주의 형태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주로 제재곡 중간 위치에서 바꾸거나 짓기를 하는 형태의 한국 출판사와는 달리, *Jump Right In*의 경우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의 위치는 제재곡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 그리고 곡 중간중간에서 이루어지며, 수업 형태는 주로 간단한 창작과 즉흥연주로 이루어지는 점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현행 한국 초등학교 5~6학년 군 8종 음악 교과서와 미국 GIA 출판사 발행 *Jump Right In* 등 두 국가의 음악적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과 활동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 출판사별로 음악적 창의성 계발을 위한 활동은 많게는 17회에서 적게는 8회 정도 제공했지만, 미국 *Jump Right In*의 경우 40회의 창작 즉흥연주 관련 활동을 제시하고 있었다. 단순 수치로 보면 미국은 1년간 40회의 창작 즉흥연주 활동을 하지만, 한국은 출판사 선택에 따라 한 학년에 4회에서 최대 8.5회 정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음악적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 또는 활동은 한국의 경우 ‘개사하기’를 중심으로 ‘말붙임새 바꾸기’와 ‘말붙임새 만들기’ 등 15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었고, 미국 *Jump Right In*의 경우 사전 활동에서는 ‘화음패턴 변형하기/만들기/발견하기/오디에이션하기’와 ‘음정패턴 변형하기/만들기/발견하기/오디에이션하기/오스티나토 만들기’ 등 9가지로 나타났으며, 목표 활동에서는 사전 활동의 화음패턴 및 음정패턴을 이용한 ‘도입부/종지부/도입부+종지부/제재곡 사이에서의 즉흥적 연주’, ‘제재곡 반주 만들기’, ‘가락짓기’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음악적 창의성 계발을 위해 사용된 교수학습 재료에서 한국은 ‘노랫말’을 중심으로 사용했지만, 미국의 *Jump Right In*은 ‘화음패턴’과 ‘음정패턴’ 등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대조를 보였다. 또한 *Jump Right In*에서 창작 즉흥연주 활동에 사용한 제재곡들의 길이는 8마디 이하의 곡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한국의 경우 16마디 이상의 과반이었고, 심지어 30마디가 넘는 제재곡들도 있어 악곡 길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창작 즉흥연주 활동이 다뤄진 위치에 따른 비교도 흥미로운데, 한국의 경우 대부분이 ‘제재곡 중간’에서 개사하기, 리듬짓기, 말붙임새 바꾸기/만들기 등 활동이 다루어 지지만, 미국 *Jump Right In*의 경우 ‘제재곡의 종지부’를 시작으로, ‘제재곡 도입부’, ‘제재곡 반주’, ‘제재곡 간주’, ‘제재곡 일부/전부 대체’, ‘제재곡 도입부 + 코드’ 등의 위치에서 그리고 다양한 방법과 패턴들을 이용해 즉흥연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결론에 기초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랫말을 중심 소재로 한 한국의 음악적 창의성 계발 활동은 재고되어야 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화음패턴이나 음정패턴 등의 소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음악적 창의성 계발을 위한 곡 선정에 있어 다양한 조성, 스타일 등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단위 시간 내 제재곡을 익히고, 이를 기초로 창작 즉흥연주 활동을 해야 하는 여건상 악곡의 길이가 16마디를 넘어서는 곡들은 피하고 되도록 8마디 이하의 곡들이 적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악곡들의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창작 즉흥연주 활동에 대한 점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안내와 구조화된 내용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References

- Byeon, H. J. (2017). *The effect on the formation of musical concept on third grade of elementary school of music creation lesson applying scaffolding theory*. Master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Caballol, O. O. (2003). *Creativity in music educatio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perceptions of teachers in English secondary school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 Elliott, D. J. (1971). Versions of creativity. *Proceedings of the Philosophy of Education*

- Society of Great Britain*, 5(2), 139-152.
- Gordon, E. E. (1989). Audiation, music learning theory, music aptitude, and creativity. *Suncoast Music Education Forum on Creativity*, 75-89.
- Hong, S. Y. (2012). Creativity in music education, an investiga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derstanding. *Journal of Ewha Music Research Institute*, 16(2), 7-27.
- _____ (2018). Creativity enhancement in music class, focused on teaching strategy of Korean general music class, elementary level. *International Journal of Learning, Teaching and Educational Research*, 17(10), 112-126.
- Jeong, J. E. (2006). An improvisation in Dalcroze methodolog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0, 177-199.
- Jung, Y. J. (2020). A study on exploring improvement and analyzing alternative material for elementary music creative activities centered on music elements.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45, 65-83.
- Kim, S. H. (2002). Enhancing the ability of improvisation with pla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2, 123-143.
- Kim, Y. H. (2001). Group improvisation strategies to develop student creativit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1, 1-25.
- Kwon, S. (2018). Development of creative improvisation training materials for beginner piano learner. *The Music Research*, 26(2), 145-182.
- Lee, Y. K. (2001). The study on various types of learning activity for teaching improvisation in college beginning piano class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1, 95-136.
- Ministry of Education (2015a). *Music curriculum*. Notice 2015-74. [Supplementary 12]. 3-11.
- _____ (2015b). *Introduction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elementary school*. [Publication registration number 11-1342000-000188-01]. 19-20.
- Park, J. H. (2011). A study on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and method of musical cre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2), 5-18.
- _____ (2012). *The research trends of master theses on elementary music creation teaching and learning*. Master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Shin, H. K. (2019). Analysis of music-creating activiti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music textbooks based on 2015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0), 691-710.

- Taggart, C., Bolton, B., Reynolds, A., Valerio, W., & Gordon, E. (2000). *Jump right in the music curriculum, book1 teacher's guide*. Chicago, IL: GIA Publication.
- The Gordon Institute for Music Learning (Unknown). *General music*. Retrived September 23, 2021, from <https://giml.org/mlt/applications/>
- White, J. P. (1968). Creativity and education: A philosophical analysi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16(2), 123-137.